

‘가늘고 길게’ 원하는 직장인들... “승진? 노 땡큐”

일의 목적 ‘재밌게 살기 위해’ 1위
‘경제적 풍요를 위해’ 30%로 2위
‘위라벨 중시 문화’ 승진기피 불러
승진=퇴직 인식에 ‘거부권’ 요구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승진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위라벨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함께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짧고 굵게’ 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거다.

◆위라벨 포기 못 해!

지난 4월 부산시교육청은 ‘중등장학사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 재공고를 냈다. 미달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충북, 서울에서도 장학사 지원자가 모집 정원보다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세대가 보수적이라 여겨졌던 교육계에 ‘승진 기피’ 현상을 불러왔다. 위라벨 우선주의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감지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6년 임금협상에서 일반직과 연구직의 ‘승진 거부권’을 요구했다. 사진은 집회하는 현대차 노조. /연합뉴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인 직장인 16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복수응답)가 좋은 직장의 기준으로 ‘위라벨이 유지되는 직장’을 선택했다.

‘급여 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이 뛰어난 직장’(59.4%),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직장’(46.3%)이 뒤를 이었다. 연봉, 명예, 직위보다는 위라벨이 우선이라는 뜻

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생산성본부가 올해 봄 입사한 신입사원 16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어떤 직책까지 승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사장’이라고 답한 비율이 10.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조사가 시작된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알하는 목적을 묻은 질문에서는 ‘재밌게 살기 위해’가 41.1%로 1위를 차지했고, ‘경제적 풍요를 위해’(30.4%), ‘자신을 시험하고 싶다’(10%)가 뒤를 이었다. 또 ‘짧아서 고생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서 고생할 것까지는 없다’는 응답이 3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라벨 때문에 승진을 기피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면, 일본사람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이 승진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승진=퇴직

현대차 노조는 2016년 임금협상에서 일반직과 연구직의 ‘승진 거부권’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에는 ‘전례 없는’, ‘기상천외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이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승진은 퇴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람이 모자라 정년까지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어 업무 부담이 많은 임원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일본의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직장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관리직으로 이상으로 승진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61.1%나 됐다.

직장인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이다’가 71.3%로 1위를 차지했다. ‘업무량이 늘어나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65.3%, ‘부하를 관리하거나 지도할 자신이 없다’는 57.7%를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관리직 간부가 부하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업무를 대신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일이 있었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사원을 감독하는 관리자는 근무 규제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노동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대상에 관리직을 포함해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DDR5 D램 개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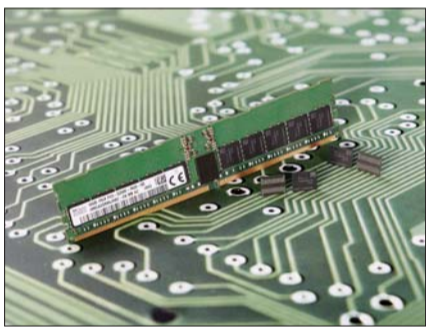
41.6기가바이트 1초만에 처리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국제반도체표준협회의기구(JEDEC) 규격을 적용한 DDR5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DDR5 D램은 2세대 10나노급(1y)과 동일한 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진 다.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 더 빠른 처리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

동작전압은 1.1V로 DDR4 대비 0.1V 낮췄다. 전력 소비량은 30% 가량 줄었다. 전송속도는 5200Mbps로 DDR4(3200Mbps)보다 1.6배 빨라졌다. 41.6기가바이트를 1초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읽기·쓰기 회로를 최적 상태로 조정하는 고속 트레이닝 기술과 전송 잡음을 제거하는 DFE, 명령어 및 데이터 처리를 병렬화하는 4페이지 클로킹



SK하이닉스는 세계최초로 JEDEC 규격을 적용한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등이다.

칩셋 업체에 제공한 제품은 서버와 PC용 RDIMM 및 UDIMM이다. 셀영역 단위 관리 구역을 32개로 확장하고, 한번에 처리하는 데이터를 16개로 2배 늘리는 등 JEDEC 표준에 맞췄다. 칩 내부에 오류 정정회로를 내장해 고용량 시스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SK하이닉스는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연내 도시개발 지구 1만2천여 가구 붓물

용인·김포 등 수도권에 8개 단지
지방에 3개 단지 5223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도시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11곳, 1만2222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용인 신봉지구, 김포 신곡지구, 수원 망포지구, 성남 대장지구, 고양 식사지구 등 8개 단지, 6999가구다. 지방은 경남 김해 내덕지구, 대전 도안지구, 전남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등 3개 단지, 5223가구 규모다.

도시개발지구는 대규모 부지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도심과 인접해 있다. 민간업체와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 공공 택지 지구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다. 특히 수

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거주무기기간 최대 5년, 전매는 최대 8년으로 제한 받는 9·13부동산대책이 이달 말 시행 예정으로 도시개발지구(사업)는 비교적 규제가 덜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달리 비교적 규제가 덜한 도시개발사업이 대안”이라며 “일반적으로 지구 내 계획된 아파트 물량만이 공급되는 만큼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도시개발지구에서 물량을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지구에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74㎡·84㎡, 447가구를 분양한다. 아파트 363가구, 오피스텔 84실이다. 비규제지역이자 9·13대책 미착용 단지로 전매제한이 6개월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北 대화로 이끈 것, 韓·美의 강력한 동맹”

文 대통령-펜스 미 부통령 면담

“곧 2차 북미정상회담 이뤄질 것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또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도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오늘 아침 트럼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택(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문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기적으로 캐나다·멕시코 등 시장확대 기대”

>> 1편 ‘CJ제일제당, 미 스위트...’서 계속

한식의 맛으로 차별화한 다양한 아시아 안푸드(Asian Food)로 식품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인근 국가로의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각 사의 차별화된 R&D, 생산, 마케팅, 영업 등 모든 역량을 집결해 최적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스위트컴퍼니의 브랜드 경쟁력과 인프라에 자사 식품사업 R&D 역량과 한국 식문화 우수성을 앞세워 2025년까지 ‘아시아 HMR 대

표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최대 마켓인 북미 공략을 통해 이재현 회장의 식품사업 철학인 ‘한국 식문화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그룹의 비전인 ‘월드 베스트(World Best) CJ’에 한층 다가가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